Check for updates

JFMSE, 38(5), pp. 1236~1245, 2026.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8권 제5호, 통권143호, 2026.
www.ksfme.or.kr
https://doi.org/10.13000/JFMSE.2026.10.38.5.1236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초기 일자리 만족의 구조적 연관: 전공 긍정평가와 전공 - 직무 일치를 중심으로

최현규 · 신은경 · 원효헌†
국립부경대학교(학생 · †교수)

Structur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and Early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Positive Major Appraisal and Major–Job Match

Hyeon Kyoo CHOI · Eun Gyeong SHIN · Hyo Heon W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student ·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tructural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positive major appraisal, major–job match, and early job satisfac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university to employment. Data were drawn from Waves 1–8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II. Individual observations were aligned so that T0 represented the latest university experience before employment and T1 the first observed main wage job after graduation. The final analytic sample comprised 1,682 respondents whose T1 was observed by Wave 8. Path analysis with 5,000 bias-corrected bootstrap resamples was conducted. The model yielded CFI=.993, TLI=.979, and RMSEA=.041. University support was associated with positive major appraisal (β=.538), positive major appraisal with major–job match (β=.180), and major–job match with early job satisfaction (β=.271). The sequential indirect association was significant but small (β=.026, 95% BC CI [.018, .036]). Auxiliary diagnostics showed that men entered T1 later than women and that, among men, pre-job military service completion was concentrated in later T1 waves. The findings highlight both the limited translation of positive major experiences into major–job match and the need to interpret results within the observed transition window.

Key words : 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Positive major appraisal, Major–job match, Early job satisfaction, School-to-work transition

I. 서 론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취업 여부만으로 평가하면 대학에서 형성된 교육경험이 실제 직업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교육과 직무의 불일치는 임금, 직장 만족 및 재탐색 행동과 관련되며(Allen and van der Velden, 2001), 전공과 직업의 관련성 역시 교육과 노동시장 간 내용적 정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Robst, 2007). 국내에서도 전공-직무 일치에 따라 취업성과와 일자리 만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and Lee, 2024). 따라서

† Corresponding author: 051-629-5972, wonhyo@pknu.ac.kr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PhiNX 보호학문 차세대육성)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청년고용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 여부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경험이 실제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결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이다. 대학은 진로정보와 상담, 교과목 선택지도, 교육과정의 선택기회 등을 통해 학생의 학업과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진로상담 경험과 전공만족은 진로성숙과 관련되며(Au, 2011), 진로탐색교육 만족과 학과만족 역시 진로결정 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ei, 2023). 다만 대학의 지원환경에 대한 평가와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선택 불안 및 전공 지속과 관련된 독립적인 진로발달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Nauta, 2007), 전공 관련 직업선택과의 관련성도 보고되었다(Eun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포괄하는 평가를 '전공 긍정평가'로 개념화하였다.

전공 긍정평가는 이후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 선택과 연결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전공만족과 진로상담 경험은 전공일치 취업결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and Kim, 2019). 그러나 전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실제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동일한 과정이 아니다. 전공-직무 일치에는 직무자격, 구직경로, 직무경험 및 노동시장 기회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작용할 수 있으며, Lee and Lee(2024) 역시 자격, 구직경로와 직무경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실제 전공-직무 일치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공-직무 일치는 초기 직장경험의 질과도 관련될 수 있다. 개인-직무 적합(person-job fit)은 직장만족을 포함한 직무태도와 안정적으로 관련되며(Kristof-Brown et al., 2005), 대학 전공과 직업분야의 정합성 역시 직장만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olniak and Pascarella, 2005). 국내 KEEP 자료에서도 초기 대학생활 경험, 전공일치 및 직무·직장만족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Gao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전공-직무 일치가 대학에서의 교육경험과 초기 일자리 경험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는 대학의 진로지원과 전공만족, 전공만족과 전공일치 취업, 전공-직무 일치와 직장만족의 관계를 각각 검토해 왔다. 그러나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 전공에 대한 평가, 실제 전공-직무 일치 및 초기 일자리 만족을 하나의 교육-노동시장 이행구조에서 함께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대학에서 형성된 긍정적 전공경험이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전공-직무 정합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교육-노동시장 이행분석에서는 개인마다 졸업과 취업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 조사차수를 일괄 적용할 경우 개인의 실제 이행순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제한된 관찰기간 내 첫 취업이 확인된 사례만을 분석하면 군복무 등을 포함한 이행시점의 차이가 표본구성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1~8차 자료에서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 이전의 가장 최근 대학경험을 T0로, 졸업 후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측된 시점을 T1으로 정렬하여 네 변인의 구조적 연관을 분석하였다. 다만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전공 긍정평가는 동일한 T0에서, 전공-직무 일치와 초기 일자리 만족은 동일한 T1에서 측정되므로 이를 인과적 매개효과가 아닌 구조적 연관과 간접연관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8차까지 T1이 관측된 사례로 표본이 구성된 데 따른 성별 이행시점의 차이는 보조적으로 점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 전공

긍정평가, 전공-직무 일치 및 초기 일자리 만족은 개인별 교육-노동시장 이행시점에서 어떠한 구조적 연관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초기 일자리 만족의 관계에서 전공 긍정평가와 전공-직무 일치를 경유한 간접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2026)이 공개한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Ⅱ: KEEPⅡ) 1~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KEEPⅡ는 동일 코호트를 추적하면서 학교 및 대학생활, 진로, 교육훈련, 구직활동과 노동시장 경험을 조사하는 패널자료이다.

개인마다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 조사차수를 기준시점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관측시점을 정렬하였다. T0는 졸업 후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측되기 이전에 대학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조사시점으로, T1은 졸업 후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가 최초로 관측된 조사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은 대학경험이 확인되고, 졸업 이후 시작된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가 5~8차에서 관측되며, 해당 일자리 관측 이전에 대학경험 시점(T0)이 존재하는 사례로 한정하였다. 모든 분석대상에서 T0는 T1보다 선행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한 이행정렬 표본은 1,685명이었다. T0는 3차(2019년 조사) 39명(2.3%), 4차(2020년) 238명(14.1%), 5차(2021년) 225명(13.4%), 6차(2022년) 779명(46.2%), 7차(2023년) 404명(24.0%)으로 분포하였다. 각 조사에서 대학경험은 각각 2018~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T0와 T1의 간격은 1개 조사차수가 1,483명(88.0%)으로 가장 많았고, 2개 차수 138명(8.2%), 3개 차수 44명(2.6%), 4개 차수 16명(0.9%), 5개 차수 4명(0.2%)이었으며, 평균 간격은 1.17개 조사차수(중앙값 1)였다. 이 가운데 초기 일자리 만족을 구성하는 8개 문항에 모두 응답한 1,682명을 최종 주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남자는 411명(24.4%), 여자는 1,271명(75.6%)이었다. 최종 표본에서 T1은 5차(2021년) 202명(12.0%), 6차(2022년) 207명(12.3%), 7차(2023년) 785명(46.7%), 8차(2024년) 488명(29.0%)으로 분포하였다. 특수결측값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변인의 측정

본 연구는 KEEPⅡ 공식 설문문항 가운데 연구문제와 개념적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주요 변인을 구성하였다(KRIVET, 2026).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항목 변인은 기존의 표준화 척도

<Table 1> Measurement of Study Variables

Variable	Time	Items	Scale	Reliability
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T0	Career information/counseling; course-selection guidance; curriculum variety	1~5	α=.742
Positive major appraisal	T0	Pride in major; satisfaction with major	1~5	α=.749
Major–job match	T1	Perceived match between major and current work	1~5	Single item
Early job satisfaction	T1	Task, work environment, working hours, relationships, pay, growth, welfare, job security	1~5	α=.858

Note. T0=latest observation of university experiences before the first post-graduation main wage job; T1=first observation of the main wage job after graduation.

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KEEPⅡ에서 반복 조사된 관련 문항을 연구목적에 따라 관측 합성지표(composite observed indicator)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문항의 일차적 출처는 KEEPⅡ 설문지 및 사용자지침이며, 선행연구는 각 변인의 개념적 의미와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주요 변인의 측정내용은 <Table 1>과 같다.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은 T0에서 대학생활에 관한 항목 중 '진로정보 및 상담', '교과목 선택에 대한 지도',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기회'에 대한 평가 3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변인은 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진로·학업 지원환경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742였다.

전공 긍정평가는 T0에서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전공에 대한 만족'을 묻는 2문항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KEEPⅡ 문항을 이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운영화한 연구용 합성지표이며, Cronbach's α는 .749였다.

전공-직무 일치는 T1에서 현재 일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한 5점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공분류와 직업분류를 외부 기준으로 대응시킨 객관적 일치가 아니라 응답자가 직접 평가한 주관적 전공-직무 일치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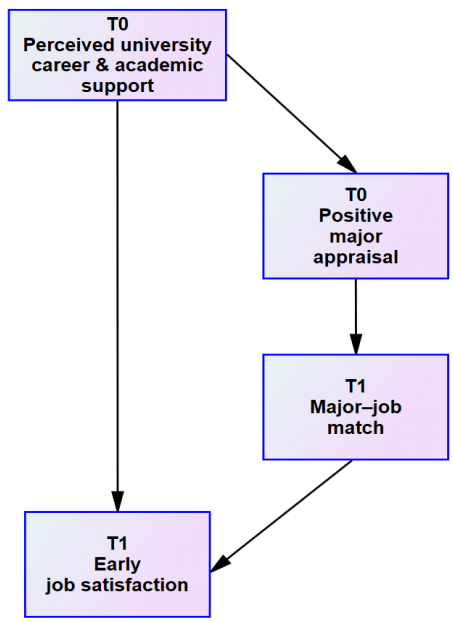
초기 일자리 만족은 T1에서 업무 자체,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가능성, 복리후생,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 8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Cronbach's α는 .858이었다. 별도로 조사된 전반적 직장만족은 합성지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8문항 합성점수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824$, $p<.001$).

다항목 지표는 표준화된 반영적 잠재척도가 아니라 KEEPⅡ 문항을 이용한 관측 합성지표로 구성하였으므로 CFA 기반의 구성타당도 검증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문항구성과 내적 일관성 및 초기 일자리 만족의 보조적 외적 연관을 중심으로 측정의 해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 → 전공 긍정평가 → 전공-직무 일치 → 초기 일자리 만족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순차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초기 일자리 만족 간의 관계가 전공 긍정평가와 전공-직무 일치만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사전에 가정하지 않기 위해,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 → 초기 일자리 만족의 직접경로를 함께 설정하였다. 반면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 → 전공-직무 일치 및 전공 긍정평가 → 초기 일자리 만족과 같은 추가 직접경로는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최소 순차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주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모형에는 별도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개별 변인의 인과효과를 추정하기보다 사전에 설정한 네 변인 간 구조적 연관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성별과



[Fig. 1] Research Model.

군복무에 따른 이행시점의 차이는 공변량으로 통제하기보다 표본선택에 대한 보조진단에서 별도로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27과 AMOS 23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항 합성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Cronbach's α로 확인하였다. 이후 AMOS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관측변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χ^2, CFI, TLI 및 RMSEA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별 경로의 표준화계수와 설명력(R^2)을 함께 해석하였다. 수정지수에 근거한 추가 직접경로의 사후적 투입은 실시하지 않았다.

간접연관의 통계적 유의성은 bias-corrected(BC) bootstrap(n=5,000)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간접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전공 긍정평가는 동일한 T0에서, 전공–직무 일치와 초기 일자리 만족은 동일한 T1에서 측정되었으므로, bootstrap으로 확인된 간접연관을 시간적·인과적 매개효과로 해석하지 않았다.

주요 결과가 취업시점과 일자리 유형의 표본정의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확인하였다. 졸업 후 24개월 이내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측된 1,664명과 비아르바이트 취업자 1,482명을 대상으로 주모형과 동일한 구조를 재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T1은 개인별 노동시장 진입시점에 따라 5~8차에 걸쳐 분포하였다. 따라서 특정 한 조사차수에 제공된 가중치를 서로 다른 T1을 갖는 전체 이행정렬 표본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분석은 비가중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 청년 모집단에 대한 모수 추정보다 개인별 교육–노동시장 이행시점을 정렬한 분석표본에서 확인된 구조적 연관으로 해석하였다.

4. 표본선택에 대한 보조 진단

최종 분석표본에서 여성의 비율이 75.6%로 높게 나타난 표본구성의 특성을 점검하기 위해 성별과 T1 관측차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성 표본에서는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 시작 전에 군복무 완료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T1 관측차수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군복무 완료 여부는 입·전역 시점과 일자리 시작시점을 이용하여 첫 일자리 시작 이전에 전역이 확인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군복무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범주에는 미필뿐 아니라 면제, 복무 중 및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필' 집단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성별 및 군복무 완료 여부에 따른 T1 분포의 차이는 χ^2 검정으로 확인하였으며, 남성의 군복무 완료 여부와 T1 간 연관의 크기는 Cramer's V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분석은 군복무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8차까지라는 관찰기간과 성별 교육–노동시장 이행시점의 차이가 최종 분석표본의 구성에 반영되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보조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T1 관측차이의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8차까지 T1이 관측되지 않은 남성의 8차 학적상태와 군복무 상태를 추가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는 군복무 여부 자체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찰종료시점까지 노동시장 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어떠한 상태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 최종 분석표본의 선택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보조진단이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의 평균은 3.574(SD=.637), 전공 긍정평가는 3.728(SD=.657), 전공–직무 일치는 3.649(SD=1.080), 초기 일자리

만족은 3.566(SD=.599)이었다. 왜도는 -.700~-.265, 첨도는 -.031~1.116의 범위로 나타나 주요 변인은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Curran et al., 1996).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은 전공 긍정평가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r=.538, p<.001), 전공 긍정평가는 전공–직무 일치와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r=.180, p<.001). 전공–직무 일치와 초기 일자리 만족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282, p<.001).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전공–직무 일치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는 매우 작았다(r=.055, p=.023).

2. 구조적 연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추정한 결과 χ^2=7.742(df=2, p=.021), CFI=.993, TLI=.979, RMSEA=.041(90% CI [.014, .074])로 나타났다. 본 모형은 자유도가 2인 간결한 경로모형이므로 적합도 지수 자체보다 개별 경로와 설명력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조경로와 간접연관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은 전공 긍정평가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B=.555, β=.538, p<.001). 대학지원환경은 전공 긍정평가 분산의 28.9%와 관련되었다(R^2=.289).

전공 긍정평가는 전공–직무 일치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296, β=.180, p<.001). 그러나 전공–직무 일치의 설명력은 R^2=.032로 나타났다. 즉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이후 전공과 현재 업무의 일치도도 높은 경향은 확인되었으나, 전공 긍정평가만으로 설명되는 전공–직무 일치의 개인차는 제한적이었다.

전공–직무 일치는 초기 일자리 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B=.151, β=.271, p<.001).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에서 초기 일자리 만족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 역시 유의하였다 (B=.175, β=.186, p<.001). 초기 일자리 만족의 설명력은 R^2=.118이었다.

이 결과는 각 경로계수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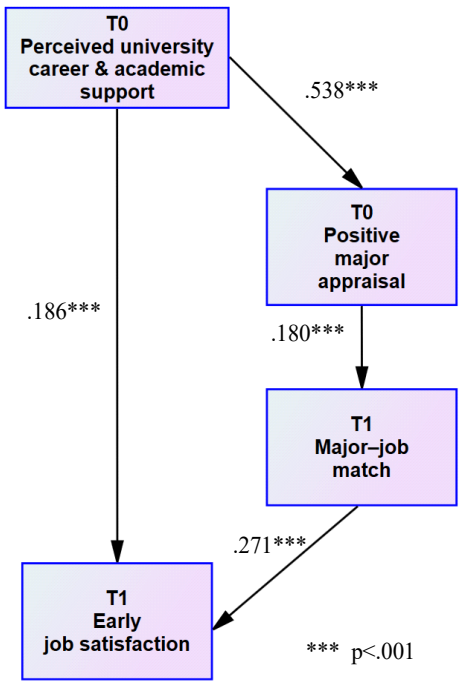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1	2	3	4
1. 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3.574	.637	-.265	.694	1			
2. Positive major appraisal	3.728	.657	-.321	.535	.538***	1		
3. Major–job match	3.649	1.080	-.700	-.031	.055*	.180***	1	
4. Early job satisfaction	3.566	.599	-.398	1.116	.201***	.185***	.282***	1

Note. N=1,682. *p<.05, **p<.01, ***p<.001.

<Table 3> Structural Associations and Indirect Associations

Path	B	β [95% BC CI]	p
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 Positive major appraisal	.555	.538 [.490, .582]	<.001
Positive major appraisal → Major–job match	.296	.180 [.128, .229]	<.001
Major–job match → Early job satisfaction	.151	.271 [.218, .321]	<.001
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 Early job satisfaction	.175	.186 [.137, .233]	<.001
Support → Positive major appraisal → Major–job match	.164	.097 [.069, .125]	<.001
Positive major appraisal → Major–job match → Early job satisfaction	.045	.049 [.033, .067]	<.001
Support → Positive major appraisal → Major–job match → Early job satisfaction	.025	.026 [.018, .036]	<.001

Note. Support=Perceived university career and academic support



[Fig. 2] Results of the Path Model.

경로계수 간 차이를 별도로 검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학지원환경과 전공 긍정평가 간에는 비교적 큰 연관이 나타난 반면, 전공 긍정평가만으로 이후 전공-직무 일치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 간접연관 및 민감도 분석

'연구문제 2'를 검증한 결과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이 전공 긍정평가를 경유하여 전공-직무 일치와 연결되는 간접연관은 유의하였다(B=.164, β=.097, 95% BC CI [.069, .125], p<.001). 전공 긍정평가가 전공-직무 일치를 경유하여 초기 일자리 만족으로 이어지는 간접연관도 유의하였다(B=.045, β=.049, 95% BC CI [.033, .067], p<.001).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 → 전공 긍정평가 → 전공-직무 일치 → 초기 일자리 만족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간접연관 역시 유의하였다(B=.025, β=.026, 95% BC CI [.018, .036], p<.001). 다만 표준화 간접효과의 크기는 .026으로 작았으며 대학지원환경에서 초기 일자리 만족으로의 직접연관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큰 간접연관으로 해석하기보다, 두 중간변인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작은 간접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도 주요 결과는 유지되었다. 졸업 후 24개월 이내 취업자(N=1,664)를 분석한 경우 주요 표준화 경로계수는 .538, .184, .274, .187로 주모형과 거의 동일하였고 순차 간접연관 역시 β=.027(95% BC CI [.018, .037])로 유의하였다. 비아르바이트 취업자(N=1,482)에서도 주요 경로의 방향과 유의성이 유지되었으며 주모형 대비 경로계수의 최대 변화는 .032였다. 순차 간접연관도 β=.029(95% BC CI [.020, .041])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모형의 전반적인 구조는 두 제한표본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24개월 제한분석은 주분석에서 제외된 사례가 18명으로 적어 취업시점에 대한 보조적 확인으로 해석하였다.

4. 표본선택에 대한 보조진단

최종 분석표본의 성별 구성과 T1 관측시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T1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T1 관측차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3)=32.20, p<.001). 남성 가운데 T1이 8차에서 관측된 비율은 39.2%로 여성의 25.7%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5차에서 관측된 비율은 남성 8.3%, 여성 13.2%였다. 즉 최종 분석표본에 포함된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후속 차수에서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측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및 남성의 군복무 완료 여부에 따른 T1 분포는 <Table 4>와 같다.

남성 411명을 대상으로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 이전의 군복무 완료 여부와 T1 관측차수의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연관이 나타났다(χ^2(3)=51.13, p<.001, Cramer's V=.353).

<Table 4> Auxiliary Diagnostics of T1 Timing by Sex and Pre-job Military-Service Completion

Group	Wave 5	Wave 6	Wave 7	Wave 8	Total
Panel A. Gender					
Male	34 (8.3)	36 (8.8)	180 (43.8)	161 (39.2)	411
Female	168 (13.2)	171 (13.5)	605 (47.6)	327 (25.7)	1,271
Panel B. Pre-job military-service completion among men					
Completion not documented before T1	29 (17.2)	17 (10.1)	85 (50.3)	38 (22.5)	169
Completed before T1	5 (2.1)	19 (7.9)	95 (39.3)	123 (50.8)	242

Note. Values are n (row %).

취업 전 군복무 완료가 확인된 남성의 50.8%는 T1이 8차에서 관측된 반면, 군복무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에서 8차 T1의 비율은 22.5%였다. 반대로 T1이 5차에서 관측된 비율은 각각 2.1%와 17.2%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표본에 포함된 남성 내부에서도 군복무를 완료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후속 T1 차수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가 이미 T1에 진입한 남성에게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8차까지 T1이 관측되지 않은 남성의 학적상태와 군복무 상태도 추가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8차에도 재학 또는 휴학 상태에 있었으며, 재학·휴학 상태인 남성의 다수는 군복무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T1 미관측 남성의 상당수가 현재 군복무 중이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군복무 이후 복학과 잔여 학업, 졸업을 거쳐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아직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종 분석표본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된 것은 단순한 성별 표본구성의 우연한 차이라기보다, 군복무를 포함한 교육이행 경로의 시간적 차이와 8차까지라는 관찰종료시점이 결합된 표본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군복무 완료 여부와 T1 관측시점은 모두 시간 경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군복무의 인과적 지연효과로 해석하지 않았다. 본 보조진단은 8차까지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 이행이 관측된 사례로 구성된 주분석 표본의 성격과 일반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KEEPⅡ 1~8차 자료에서 개인별 대학경험 시점과 졸업 후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 관측시점을 정렬하여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 전공 긍정평가, 전공-직무 일치 및 초기 일자리 만족의 구조적 연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은 전공 긍정평가와, 전공 긍정평가는 전공-직무 일치와, 전공-직무 일치는 초기 일자리 만족과 각각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두 중간변인을 순차적으로 경유한 간접연관도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는 작았다.

첫째,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은 전공 긍정평가와 비교적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며(β=.538), 전공 긍정평가 분산의 28.9%와 관련되었다. 이는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신의 전공 역시 만족스럽고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진로상담 및 진로탐색교육과 전공만족·진로발달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Au, 2011; Wei, 2023)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다만 본 연구의 지원환경은 객관적 지원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주관적 평가이므로 대학지원 자체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공 긍정평가는 전공-직무 일치와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설명력은 3.2%에 그쳤다. 이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으로 이후 전공-직무 일치의 개인차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무자격, 구직경로, 직무경험 및 노동수요 등 다양한 조건이 전공-직무 일치에 관여한다는 점(Lee and Lee, 2024)을 고려하면, 긍정

적인 전공경험과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전공-직무 정합성 사이에는 본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다양한 조건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공-직무 일치는 초기 일자리 만족과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β=.271), 이는 개인-직무 적합 및 전공과 직업분야의 정합성이 직장만족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Kristof-Brown et al., 2005; Wolniak and Pascarella, 2005)와 일관된다.

셋째, 전체 순차 간접연관은 β=.026으로 작았고,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초기 일자리 만족 간의 직접적인 구조적 연관도 유의하였다(β=.186). 따라서 대학지원환경과 초기 일자리 만족의 관계가 전공 긍정평가와 전공-직무 일치를 경유하는 경로만으로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로정보 습득, 진로준비 및 구직역량 등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은 다른 연결기제는 후속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본선택에 대한 보조진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T1이 후속 차수에 관측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성 내부에서도 취업 전 군복무 완료가 확인된 사례가 후속 T1 차수에 집중되었다. 또한 8차까지 T1이 관측되지 않은 남성 가운데 상당수가 재학·휴학 상태였고 이들 중 다수는 군복무를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이는 8차까지라는 관찰기간과 성별 교육-노동시장 이행시점의 차이가 최종 표본구성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8차까지 졸업 후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 이행이 관측된 청년의 구조적 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전공 긍정평가를 구분하고, 이를 전공-직무 일치와 초기 일자리 만족까지 연결함으로써 대학 내부 경험과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험을 하나의 교육-노동시장 이행구조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개인마다 다른 이행시점을 T0와 T1으로 정렬함으로써 동일 조사차수 중심의 패널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점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였다. 둘째, 전공 긍정평가가 전공-직무 일치와 유의하게 관련되면서도 그 설명력이 제한적임을 확인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전공-직무 정합성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역시 두 가지이다. 첫째, 대학 진로지원의 성과를 프로그램 참여율, 만족도 또는 취업률에 한정하기보다 전공에서 습득한 지식과 역량이 어떠한 직무로 연결되고 실제 업무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공-직무 일치와 전공 활용도는 취업률을 보완하여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결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의 진로지원은 전공교육과 별도로 운영되는 취업서비스에 머무르기보다 학과별 직무정보, 전공역량과 직무역량의 연계,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졸업생의 진입직무 및 산업별 채용경로와 요구자격 등을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공-직무 일치를 모든 청년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취업성과로 보기보다, 전공에서 습득한 역량을 직업세계에서 활용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대학의 진로·학업 지원환경과 전공 긍정평가는 동일한 T0에서, 전공-직무 일치와 초기 일자리 만족은 동일한 T1에서 측정되었으므로 간접연관을 인과적 매개효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자기보고 자료에 따른 공통방법분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주요 변인은 KEEPⅡ 문항을 이용한 관측 합성지표이고 전공-직무 일치는 단일문항이므로 측정오차를 분리하거나 표준화 척도 수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공계열, 산업, 직종, 지역 노동시장, 자격 및 구직경로 등 전공-직무 일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주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넷째, 분석표본이 8차까지 첫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가 관측된 사례로 제한되어 관찰기간과 성별 교육이행 시점에

따른 선택 가능성이 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추가 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T1 미관측 사례를 우측검열로 포함한 사건사 분석 등을 실시하고, 서로 다른 이행경로에서도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llen J and van der Velden R(2001). Educational mismatches versus skill mismatches: Effects on wages, job satisfaction, and on-the-job search. Oxford Economic Papers, 53(3), 434~452. https://doi.org/10.1093/oep/53.3.434

Au YK(2011).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5), 1793~1811. https://doi.org/10.15703/kjc.12.5.201110.1793

Curran PJ, West SG and Finch J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Eun H, Sohn YW and Lee S(2013). The effect of self-regulated decision making on career path and major-related career choice satisfaction.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50(3), 98~109. https://doi.org/10.1002/j.2161-1920.2013.00029.x

Gao H, Hwang J and Yi J(2018). The effects of early college experiences on the future major congruence and the job·work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5), 847~866.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5.847

KRIVET(2026). KEEP Data Download. Retrieved from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20 on August 26.

Kristof-Brown AL, Zimmerman RD and Johnson EC(2005). Consequences of individuals' fit at work: A meta-analysis of person-job, person-organization, person-group, and person-supervisor fit. Personnel Psychology, 58(2), 281~342. https://doi.org/10.1111/j.1744-6570.2005.00672.x

Lee JY and Lee YJ(2024). Differences in employment outcomes by major-job congruence across major fields and determinants of major-job congru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30(2), 143~170. https://doi.org/10.24159/joec.2024.30.2.143

Lee MS and Kim HN(2019). A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esence/absence of career counseling on the major matched employment determin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1), 33~53. https://doi.org/10.35273/jec.2019.9.1.002

Nauta MM(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46~462. https://doi.org/10.1177/1069072707305762

Robst J(2007). Education and job match: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4), 397~407. https://doi.org/10.1016/j.econedurev.2006.08.003

Wei L(2023).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 comparison of domestic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5(3), 464~482. https://doi.org/10.13000/JFMSE.2023.6.35.3.464

Wolniak GC and Pascarella ET(2005). The effects of college major and job field congruence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233~251. https://doi.org/10.1016/j.jvb.2004.08.010

- Received : 04 September, 2026
- Revised : 21 September, 2026
- Accepted : 28 September, 2026